

❖ 학생 상담 의뢰를 위한 가이드 (부록1)

◆ 면담 과정 및 의뢰 방법

☑ 1단계 :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주요 징후

- 학업 문제: 학교생활(출석, 과제 제출, 성적)에서 부적응을 보이거나 변화가 관찰됩니다.
- 정서적 변화: 불안, 우울, 무력감 등의 부정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혹은 감정에 기복이 있거나 상황에 부적절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
- 대인관계 문제: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고립되어 있습니다.
- 위기 신호: 옷차림, 외모, 위생 상태에서 변화를 보이고 자신을 적절하게 돌보지 않습니다.

☑ 2단계 : 편안한 환경 조성

- 심리적 위기의 학생은 상당한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무력감이나 무가치감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면담시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부정적인 감정이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세요.

☑ 3단계: 상담 권유 및 동의 얻기

- 학생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권유해 주세요.
-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,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하여 학생의 불안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- 상담에 참여하는 데에는 학생의 자발적인 동기가 중요합니다. 상담 참여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.

☑ 4단계: 학생상담센터 의뢰 방법

- 아래의 방법 중 학생과 상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리적 어려움이 커보인다면 가능한 EDWARD 시스템을 통해 연계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
- 학생이 STORY+를 통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.
- 학생의 동의를 얻어, EDWARD 시스템을 ([학사>상담>학생상담관리>연계상담 바로가기](#)) 통해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.

◆ 도움이 되는 대화법

☞ 해야 할 일 Do!

- ☑ 열린 질문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, 상황보다는 무엇을 느끼는지 집중합니다.

“요즈음 학교 생활이 어때요? 혹시 힘든 일이 있나요?”

“ 그 일을 겪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걱정되거나 불안했나요?”

- ☑ 진지하고 공감적인 태도로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.

“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군요. 나아지는 방법을 찾는 동안 나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.”

- ☑ 혼자서만 도움을 주려 하기보다 주변의 가족, 선배, 친구, 상담 전문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.

“학생의 안전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필요해요.”

“혹시 부모님께서 알게 되었을 때 염려되는 것이 있나요?”

- ☑ 학생이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,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으며, 돕고 싶은 의사를 반복하여 전달합니다. 학생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지원을 받은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, 처음부터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 때 강압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언제든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진심 어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☞ 하면 안 되는 일 Don't

- 감정에 옳고 그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.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
“그것 때문에 죽을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?” (X)
- 자살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자신의 어려움이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
“죽을 용기로 더 열심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?” (X)
- “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.” 라는 비현실적인 확신을 주거나,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. 그 방법이 안 되면 또 절망합니다.
“이 고비만 넘기면 다 잘 될 겁니다.” (X)
- 반드시 꼭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.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 보호자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.
“나만 알고 있을게요. 편하게 얘기해봐요” (X)